

‘고독의 시인’ 김현승 ‘국토의 시인’ 조태일 15일 문학제

다형(茶元) 김현승과 죽형(竹元) 조태일.

서로의 작품 세계와 빛깔은 다르지만 두 시인은 남도가 배출한 대표 문인이다. 문학 세계가 다르듯 두 시인의 성향과 성품 또한 상이하다. 다형은 선비의 이미지가 강하고, 죽형은 지사의 풍모가 느껴진다.

그럼에도 공통점은 있다. 그들의 호에 공통적으로 ‘형(元)’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형이라는 말에는 모든 것을 품어주는 따뜻한 뜻이 담겨 있다. 때로는 엄하지만 속성은 깊은 사람이 형이라 부른다. 다형과 죽형은 활동했던 시대는 다르지만, 각기 광주와 남도를 배경으로 시문학사의 만행 역할을 했다.

또 하나, 다형과 죽형은 가을에 어울리는 시인이다. 김현승은 ‘고독의 시인’이며 조태일은 ‘국토의 시인’이다. 각각 가을이라는 계절과 부합하는 대표작 ‘가을의 기도’, ‘국토 서시’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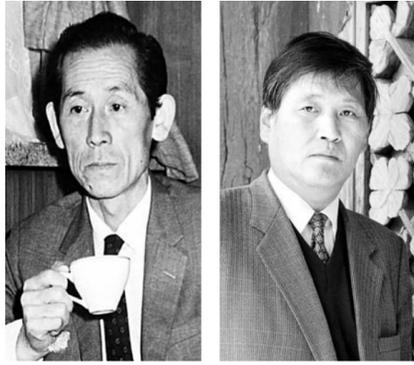
다형과 죽형의 삶과 문학을 기리는 축제가 열린다. 다형 김현승기념사업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양림동 오웬관에서 ‘다형 문학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문학잔치는 기념사업회와 광주문협 관계자, 지역 문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의 문화인물 브랜드로서의 다형의 작품을 재조명하고 시민들에게 자금을 심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김현승 시인 시화(詩畵) 전시와 시인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물을 시청한다. 2부에서는 다형 시낭송회 회원들이 시인의 작품 ‘아버지의 마음’ 등 다수 작품을 낭송하며, 광주여성 솔리스트 앙상블 회원들이 ‘가을의 기도’ 등 시음악을 들려준다.

마지막 3부에서는 이동순 조선대 교수의 다형에 대한 연구 자료를 선보이는 학술 발표회가 예정돼 있다.

한편 평양 출신 김현승 시인은 목화자였던 아버지를 따라 제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이후 광주에 정착했다. 기독교계통의 숭실학교를 졸업했으며 숭실전문학교를 수료했다. 조선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김현승시초’, ‘견고한 고독’, ‘절대고독’ 등을 펴냈다. 문의 062-607-2316, 010-8028-2880.

죽형 조태일 시인 문학축전은 15일 오후 3시 곡성레저문



다형 김현승 시인 죽형 조태일 시인

김현승기념사업회 양림동서 문학잔치
시낭송·시음악 ‘가을의 기도’ 등 다채

조태일기념사업회 곡성서 문학축전
미디어아트·시화전·문학기행 등 열려

화센터 동아아트홀에서 개최된다. 기념사업회와 광주전남 작가회의, 조태일시문학관 주관으로 ‘생각하라, 불발하라, 사랑하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학축전은 미디어아트, 시낭송, 시화전, 문학기행 등 다채로운 행사로 치러진다.

한편 곡성 출신의 조태일 시인은 광주서중, 광주고, 경희대를 졸업했으며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시집 ‘아침선박’, ‘식칼론’, ‘국토’ 등을 펴냈다. 문의 010-3901-5367, 010-3007-2833.

행사장 주변에서는 죽형의 대표 시를 중심으로 시화전이 펼쳐진다. 이야기 손잡으로 정규철 씨가 출연해 ‘내가



양림동 오웬 기념각



조태일 문학관 내부

아는 조태일’을 소개하며 소설가 공선옥은 ‘쫓고 더운 우리 집’에 대해 들려준다. 또 정원도·유종·채상근 시인이 낭송을 들려주고 행사 이후에는 태안사, 조태일시문학관 관람 등 문학기행이 펼쳐진다.

한편 곡성 출신의 조태일 시인은 광주서중, 광주고, 경희대를 졸업했으며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시집 ‘아침선박’, ‘식칼론’, ‘국토’ 등을 펴냈다. 문의 010-3901-5367, 010-3007-283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국악방송 개국 4주년 기념 음악회

13일 문예회관 대극장
조통달·주병선 등 출현

광주국악방송이 개국 4주년을 맞아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음악회 ‘행복한 동행’을 연다.

지난 2014년 3월 첫 전파를 탄 광주국악방송은 ‘흐르는 음악처럼’, ‘남도마실’ 등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첫 지역 국악방송국이다.

방송인 이상벽이 사회를 맡은 이번 공연엔 명창 조통달이 단가 ‘호남가’와 ‘수궁가’ 중 ‘좌우나졸’을 부르며 문을 연다. 또 ‘칠갑산’의 주병선이 무대에 올라 ‘들꽃’, ‘어머니의 나라’ 등으로 정취를 더한다.

남도민속놀이문화예술원이 박병천 류 진도북춤으로 흥을 돋우고 유랑극단 ‘약단광칠’이 영정거리, 어차 등을 선보이며 무대를 흥겹게 꾸민다. 마치



명창 조통달 가수 주병선

막으로 남사당놀이보존회가 풍물놀이, 버나놀이, 무동놀이 등으로 마무리한다.

공연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생중계하고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에 국악방송라디오를 통해 방송한다(광주 FM 99.3MHz, 진도·목포·해남 94.7MHz). 무료 관람. 문의 062-602-931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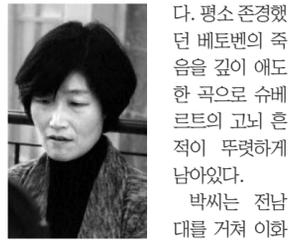
피아니스트 박수영 26번째 독주회

13일 유·스퀘어문화관

피아니스트 박수영(사진)씨가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26번째 독주회를 연다.

이날 공연은 재즈를 클래식 접목한 윌리엄 불콰의 ‘고스트 래그’로 시작한다. 첫번째 곡 ‘아얀 유랑’은 아버지의 죽음을 추모하는 곡으로 서정적인 멜로디가 특징이다. 이어지는 곡들도 몽환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 공연에서 선보이는 베토벤 초기 소나타 ‘비창’은 베토벤의 내면을 강렬하게 표출하는데 중점을 뒀다. 마지막으로는 슈베르트 최후의 3대 소나타로 불리는 ‘19번 C단조 D.958’을 연주한다.



다. 평소 존경했던 베토벤의 죽음을 깊이 애도한 곡으로 슈베르트의 고뇌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박씨는 전남대를 거쳐 이화여대 대학원에

서 피아노를 전공했으며 프랑스 파리 콘서바토리 인터내셔널과 예펠 노말 슈페리얼 과정에서 공부했다.

다수의 독주회를 열고 성 페테르스버그 챔버오케스트라, 불가리아 슈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문의 010-4508-995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내일 ‘민선 7기 문화정책’ 포럼

광주문화도시협의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강당에서 ‘민선 7기 문화정책과 기초예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전남문화유산재단 등 광주지역 10여개 시민문화예술단체가 공동 주관한다.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의 사회로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 ‘문화도시 광주! 기초예술 활성화 방안’을, 문병재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이 ‘민선 7기 문화정책과 기초예술’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선재규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감독, 윤만식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주홍치유예술가,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의 062-234-272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악 신인 발굴의 산실 ‘임방울국악제’ 14일 팡파르

광주가 낳은 국악 임방울(1904~1961)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신인 국악인을 발굴하는 ‘26회 임방울국악제’가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사단법인 임방울국악진흥회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문예회관 등 광주 8곳에서 진행된다.

임방울국악제는 매년 열리는 국악 축제로 전통국악의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는 전야제와 임방울판소리장기자랑 대회가 열린다.

행사 첫날인 14일에는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신진 국악인들의 잔치인 ‘임방울판소리장기자랑대회’가 열린다. 판소리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42명에게는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같은 날(오후 5시 50분) 열리는 ‘전야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을 받은 명창 김전미씨가 진행을 맡은 전야제에서는 왕기철·기석 형제가 창극 ‘홍보가’ 중 ‘화초장 대목’을 선보인다. 국립창극단 단원 김준수와 그룹 ‘두번째 달’이 협연을 한다. 가수 박서진의 타악과 ‘박달재’, ‘절레꽃’ 노래 공연이 이어지며 전예주·최연자·김향순·김연·



김향순

김미나·서정민·노해현 명창 등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들과 유명 국악인들이 무대를 꾸민다. 공연은 KBC광주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본선은 17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경연은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판소리 명창부를 포함해 학생부(판소리·기악·무용), 일반부(농악·판소리·기악·무용·시조·가야금병창·퓨전판소리)로 나뉜다.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4000만원과 순금 트로피가 주어지는 등 모두 1억9000만원의 상금이 걸렸다. 대회 실황은 SBS에서 전국 생중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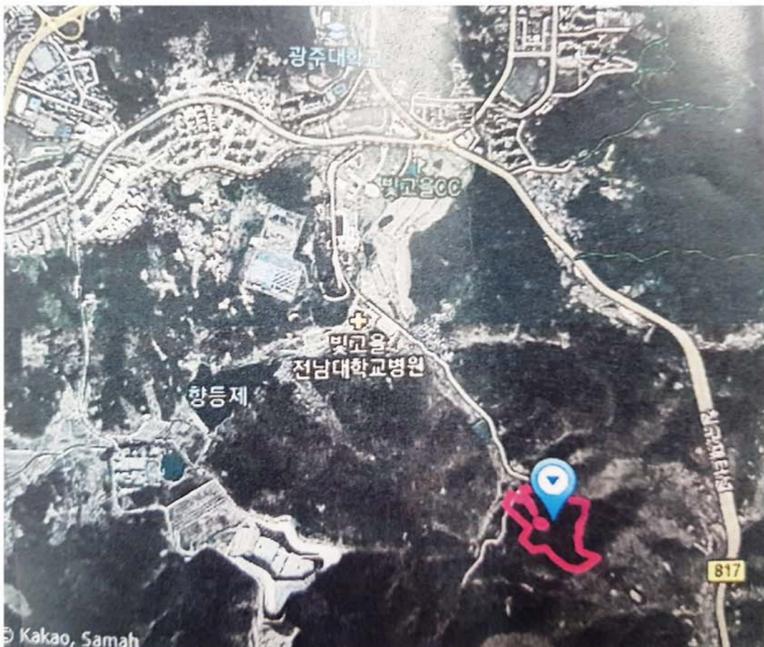
(사)임방울국악진흥회는 해마다 국악예 수상자들과 함께 해외 공연을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말레이시아 수교 57년을 맞아 페낭 조지타운페스티벌에 초청돼 국악의 매력을 알렸다. 올해는 오는 10월4~10일 광주시 자매도시인 대만 타이난시 남영국제 민속예술제에서 공연을 선보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창 임방울

장/단기 투자가치 좋습니다.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이전비용 매도자부담)
- 문의. 010-6834-7400